

‘IMF 25년’...외환위기를 아시나요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 12월 3일 승인 ‘금 모으기’ 운동 등 통해 2001년 8월 23일 조기졸업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5년 달성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샴페인을 터트린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찾아온 위기에 기업들은 문을 닫고 은행은 줄 도산했다.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 위기의 징후가 드리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고, 펀더멘탈(기초체력)도 튼튼해 당시 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며 외환위기가 다시 재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뉴시스는 IMF 25년을 되돌아 보며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과 향후 위기 재연 가능성 등을 진단해 봤다.

1997년 태국 화폐인 바트와 가치가 급락하면서 시작된 동남아 경제 위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로 번졌다. 화폐가치 하락에 위기감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단기자금을 회수 했고,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12월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내려가며 바닥을 보이며서 국가 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국제신용평가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내려 잡았다. 당시 IMF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에 10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배정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같은해 12월 3일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했다. 구제금융 진행 당시 고금리, 구조조정, 공공재 영리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우리가 IMF 사태를 맞은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자본시장 자유화를 진행하면서 단기자본을 쉽게 빌려 올 수 있도록 한 영향이 컸다. 은행들은 해외에서 저금리로 1년 미만 단기자금을 빌려와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금리로 대출해 줬다. 이로인해 외채 규모가 1991년 391억 달러에서 1996년 1047억 달러, 1997년 1208억 달러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이 가운데 58% 가량은 단기 채무였다.

또 우리 경제의 주력업종인 수출이 줄면서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도 컸다. 우리나라는 IMF 전인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2년 4개월 간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이어졌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04억 달러로 1997년 7월 전고점(336억 달러) 대비 39.4%나 줄었다. IMF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1997년



영화 ‘국가부도의 날’. (사진=영화사 집, CJ엔터테인먼트 제공)

11월까지 900원대 수준에서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도 같은해 12월 23일 1962.0원까지 치솟았다.

IMF 3개월 전 노동부에 신고된 전국 사업장 체불임금 금액도 6480억원에 달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주가 하락폭도 사상 최대 폭을 기록했다. IMF 이듬해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공공기업 108곳을 민영화시키고 공공부문 인력 14만 명을 감원했다. 한보, 기아, 대우 같은 대기업이 부도를 맞을 등 하루 동안에만 회사 1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1998년엔 실업자가 92만명 늘었다. 실업률도 7%까지 치솟았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당시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5.1%로 흑독한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부족한 외화를 채우기 위해 전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이어갔다. 국민들은 장롱 속에 넣어 뒀던 결혼반지와 돌반지, 금두꺼비, 금메달 등 금붙이를 꺼냈다.

불과 두 달 만에 350만명이 참여했고, 아무런 대가 없이 모인 금은 227t에 이르렀다.

이런 노력 덕분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 23일 IMF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위기에서 벗어났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 중 IMF를 조기 졸업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200억 달러 안팎에서 머물던 외환보유액도 경상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꾸준히 늘면서 2001년 9월 1000억 달러, 2005년 2월 20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었다. 마이너스로 추락했던 경제 성장률도 1999년 2.5%, 2000년 3.1%로 급격히 상승했다.

IMF 위기 당시 190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도 2009년 초까지 1400~15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같은해 9월 1200원대 아래로 내려가며 안정을 찾았다.

뉴시스

고금리에 개인과산 재현되나

새해 들어서도 금리인상 지속...주담대 상단 8% 돌파 전업카드사 평균금리 카드론 15%, 리볼빙 17% 달해

지난해에 이어 새해 들어서도 금융사들의 대출금리 인상 흐름이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취약차주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올해 첫 영업일인 2일 기준 연 5.27~8.12%로 집계됐다.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지난해 말 7% 후반대에서 올 들어 시작부터 8%를 훌쩍 상회했다.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는 4.82~6.875%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신규 코픽스)은 4.95~7.368%,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은 5.893%~7.32%를 각각 형성했다.

지난해 첫 영업일인 2022년 1월3일 당시 주담대 변동금리는 3.57~5.07%였다. 1년 만에 금리 상단이 3.05%포인트 치솟은 것이다.

이 기간 주담대 고정금리는 3.61~5.31%에서 상단 기준 1.565%포인트 뛰었다. 전세대출은 3.399~4.799%에서 2.569%포인트, 신용대출은 3.387~5.40%에서 1.92%포인트 각각 급등했다.

현재 대출 상품별 7~8%대 금리는 시중은행 각사의 내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 차주 기준이다. 중저신용자들의 경우 이미 10%가 넘는 두 자릿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서는 일반적인 대출금리가 15% 수준에 달한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연 14.84%로 나타났다. 7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14%를 넘는 것은 처음이다. 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우리카드는 16.99%에 달했으며 삼성카드(15.97%), 신한카드(14.68%), KB국민카드(14.39%), 현대카드(13.99%), 하나카드(13.94%), 롯데카드(13.9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리볼빙은 카드론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보이고 있다. 우리카드가 18.40%로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가 17.8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KB국민카드(17.70%), 현대카드(17.24%), 신한카드(16.75%), 삼성카드(15.38%), 하나카드(14.32%) 등의 순을 보였다. 평균은 16.80%에 달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최대 90%를 신용점수 영향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일종의 대출서비스다.

금융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올 상반기 정점을 찍고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에야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 관측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25%로 미국과 역전 폭이 1.25% 벌어져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는 지난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4.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 역전 차가 1.25%포인트로 벌어진 것은 지난 2000년 10월 이후 22년여 만의 최대 폭이다. 연준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5.1%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한국의 금리 역전 폭이 더 커지면서 자본 유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춰 기준금리를 3.5% 이상으로 높이면, 시장금리가 따라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 추계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3조7000억원, 1%포인트 오르면 7조4000억원, 1.5%포인트 오르면 11조1000억원 각각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증가액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60만원, 0.5%포인트 오르면 119만원 증가했다. 상승 폭이 1%포인트면 238만원, 1.5%포인트면 357만원 이자가 불어났다.

은행권에서는 청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위한 갖가지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하우스푸어를 비롯한 차주들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약차주가 빌린 돈을 아예 못 갚는 상황으로 악화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 은행 입장에서도 이익”이라며 “현재의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금리인상기에 올린 수익을 환원하는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